<제3강_악에 대한 철학적 고찰>

아우구스티누스의 악 개념과 칸트 철학

구연상(숙명여대)

1. 악(惡)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槪念, 생각모두잡기)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Aurelius: 354~430)는 제정 로마 시대 라틴 교부였다. 그는 지금의 알제리에 있는 히포 레기우스의 주교로 34년 동안 봉직했다. 그 당시 히포는 북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 그는 서양 사상의 두 뿌리를 이루는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종교를 하나로 묶어** '그리스도교 철학'을 탄생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를 때, 실체로서 있는 모든 것은 선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신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어, 사람의 몸에 손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불편(不便)을 '선의 결핍(缺乏)'이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손이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 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손으로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면, 그는 그 손을 악용(惡用)한 것이다. 올바른 정신을 갖춘 사람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손이나 발 또는 눈을 선하게 사용할 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들로써 악을 저지를 수 있다. 눈과 같은 것이 비록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에 종사하게 만들지라도 얼굴에 눈이 있다는 것 자체는 매우 큰 선임에 틀림없다.[1]

모든 실체가 선하다면, 악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밝혀질 수 없고, 행위적 차원, 달리 말해, 누군가 무엇을 부당하게 당하거나(pati) 행하는(facere) 차원에서 따져질 수밖에 없다.(아우구스, 368 쪽) 사람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당한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죄는 스스로 원하여 행동할 때(ita fecit volens)에만 생겨날 수 있다.(아우구스, 367) 사람은 자신에게 선물로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해 사용권을 갖는다. 그 자신과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선물로서 일종의 빚이다. 사람이 그 빚을 올바로 갚는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사람이 만물과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 창조된 선한 뜻을 거슬러 사용할 때, 악이 발생한다. 이는 스스로 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仝)

창조된 모든 게 그 자체로 선하다면, 자유의지 또한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서 반드시 선을 지향해야 한다.(아우구스, 366 쪽, 옮긴이 각주 118) 다만 사람이 가진 의지(意志, voluntas)는 원함(velle, volens)과 원치 않음(nolle, nolens)을 결정하는 영혼의 능력(아우구스,

1 아우구스티누스 지음, 성염 옮김, 『자유의지론(De libero arbitrio: 388-396년 사이에 쓰임)』, 분도출판사, 1998, 253 쪽 살핌. 앞으로 따옴글은 괄호 속에 "아우구스"로 줄여 적음.

368 쪽, 옮긴이 각주 122)으로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악은 자유로운 의지가 잘못 사용되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의 의지는 "올바로 행할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arbitrium liberum voluntatis recte faciende)"이다. 사람이 이러한 올바른 자유의지를 갖추지 못하는 까닭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거나, 비록 어떠한 것이 올바로 행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육체의 습관이 너무 강력하여 '올바로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올바로 행함(recte facere)을 알지 못하는 것(ignorantia)과 그것을 알고 또 행하려 하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무능 또는 곤란 또는 애로(隘路, difficultas)"가 곧 악의 원인이다.(아우구스, 377 쪽) 신에 의해 창조된 그 상태의 온전한 의지는 "올바로 행하는 자유의지(libera voluntas recte faciendi)"이지만, 죄벌에 의해 단죄된 자유의지는 "거짓을 참이라고 우기고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르며, ... 육정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아우구스, 379)
사람은 스스로의 알지 못함을 깨닫고, 자신의 정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여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은 그[사람]가 믿으면 가르치시고, 그가 바라면 위로하시고, 그가 당신을 사랑하면 훈계하시고, 그가 노력하면 보우하시고, 그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아우구스, 379) 사람이 자신의 알지 못함과 힘없음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신의 도우심을 찾아 구하는 길만이 단죄 받은 사람들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선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물을 악하게 사용하고, 이와 달리 다른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다.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물에 정을 두고, 애착하고, 매달린다. 그로써 그는 자기에게 종속시켜야 마땅할 사물들에 자신이 되레 종속을 당하고 만다. 사물에 대한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또는 재산들의 선을 해치는 일과 같다. 반면 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용을 통해 사물의 선을 키운다. 이런 사람은 재산과 같은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사물을 소유하고 지배하지만, 그것들을 잃었을 때에는 소유하려 매달리지 않는다.(아우구스, 143 쪽)
모든 죄악은 "신적이고 참으로 영속하는 사물로부터 등을 돌리고서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사물들에로 돌아서는 데" 놓인다.(아우구스, 145) 사물들은 그것들마다의 고유한 차원에 올바로 위치해 있고, 그것들 나름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사물들을 본래의 질서에 따라 지배하지 못하고, 사물들에 대한 탐욕을 가짐으로써 악이 출현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 비롯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대의 광명을 등지고 작의 어둠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불행하여라! 그들은 그대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마치 자기 그림자에 매달리듯이 육적인 활동에 애착하고 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그들의 마음에 드는 대상은 아직껏 그대의 후광(後光)을 간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사랑하는 동안은 그 그림자가 정신의 눈을 갈수록 약화시키며, 그대의 모습을 우러러볼 수 없으리만큼 허약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자기 허약한 눈으로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이면 무턱대로 따라가는 한, 사람은 갈수록 어두워지기만 합니다. 거기서 시작하여 그는 최고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며, 자기가 선견지명이 없어서 실수하고서는 그것[최고로 존재하는 것]을 악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부당한 사람이면서 유혹하는 바를 악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사로잡혔으면서도 고문하는 바를 악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진리를

등진) 배향(背向, aversio)의 대가로 이 모든 것을 당할 따름이며, 무릇 정의로운 것은 악한 것일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아우구스, 243, 245 쪽)

악은 결국 '알지 못함(무지)'과 '행할 수 없음(무능력)'에서 비롯된다. 앎은 스스로 갈고 닦음으로써 키울 수 있지만, 방치하거나 충동이나 욕망에 스스로를 내맡김으로써 맹목적이 된다. '알지 못함'은 결국 앎의 능력을 가진 사람 자신이 그 능력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데 소홀하고 태만하며 게으름을 피운 탓이다. 옳은 일을 행할 수 없음, 즉 능력의 못 미침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욕의 힘을 정신과 이성의 힘으로써 다스려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지 못함으로써, 달리 말해, 욕망의 노예가 됨으로써 주인이 노예에게 종속된 탓이다.(ㅇ)

간통과 살인과 신성모독이라는 가장 큰 악(tria genera malorum)은 그것들이 법에 의해 금지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악이기 때문에 법이 금하는 것이다.(아우구스, 89 쪽) 간통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인 정욕(情慾, libido)을 따르는 것이다. 정욕은 욕망(慾望, cupidatas)의 한 종류이다. 욕망을 따르는 것 자체는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보기를 들어, 누가 어떤 사물을 얻으려는 욕망(탐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악이 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악을 저지른 게 아니다. 이때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람을 죽인 셈이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은 분명 선을 욕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욕망은 탓할 수 없다.(아우구스, 85-89 쪽)
수많은 사람들과 법이 간통을 악이라고 공언하는데, 간통이 악이 되는 이유는 그 행위가 "질책 받을 만한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nisi quod libidine, id est improbanda cupiditate) 때문"이다. 이러한 '탓할 욕망(cupiditas culpanda)'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상실할(invitus amittere) 수 있는 그런 사물들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아우구스, 89 쪽) '탓할 욕망'의 반대 개념이 곧 '선한 의지(voluntas bona)'이다. 간통은 그것이 자신의 아내와 남편이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부부애라는 '선한 의지'에 반하는 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ㅇ)
그런데 누군가의 '자기 의사'에 반하는 짓을 저지르는 것이 언제나 다 악한 것은 아니다. 이때의 자기 의사는 선할 수도, 반대로 악할 수도 있다. 보기를 들어, '중한 체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주인을 죽인 노예'는, 그가 비록 '주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선한 욕망'을 품긴 했지만,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주인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죽인 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아우구스, 89 쪽)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말이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남에게 행하라'는 말은 이때의 '바라지 않는 일'과 '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게 전제되지 않는 한, 달리 말해, 그의 의사가 '탓할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이 증명되지 않는 한, 아직 도덕의 황금률이 될 수 없다.(ㅇ)
이와 달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어느 정도는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법률에 어긋나는 짓을 할 때 그것을 악한 짓으로 본다. 하지만 법률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것일 수 있는 한, 악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완전하지 않다. 게다가 법률은 특정한 종류의 살인을 허용하기까지 한다. "군인이 적군을 죽일 때, 재판관이나 그의 형리가 유해한 사람을 죽일 때, 또 우연하게 비고의로 또는 부주의해서 무기가 손에서 빠져나가 사

람을 죽이는 경우"(아우구스, 87 쪽) 등은 법률이 허용하는 살인의 경우들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비난받을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아우구스, 91 쪽)
그러나 모든 악행이 실정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법률들은 사실상 범죄가 되는 많은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실정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고, 불완전한 사회도덕의 반영에 불과하다.(아우구스, 96, 옮긴이 각주 32) 게다가 아무리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일지라도 그것이 악한 짓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빼앗았을지라도,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가 자신을 죽이려는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죽였을지라도, 만일 나의 목숨이나 재산이 전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라면, '정당한 살인'이라는 개념은 신의 관점에서는 저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아우구스, 93-95 쪽)
사람은 그가 하느님의 말씀인 '계시로 드러나는 신적 지혜', 곧 진리를 바라봄으로써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지혜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형상(forma aeterna et immutabilis)으로서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피조물들의 존재 근거가 된다. 이 형상은 '내포도 공간상의 연장(延長)도 없고(neque contineri et quasi diffundi locis)' '연속이나 시간에 의한 변화도 없다(neque protendi atque variari temporibus).(아우구스, 245 쪽)
사람에게는 '선한 의지(bona voluntas)'가 주어져 있다. 이 의지는 사람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최고의 지혜에 도달하기 희구하는 의지(voluntas, qua adpetimus recte honesteque vivere)"를 말한다.(아우구스, 123 쪽)
악의 뿌리는 오만(傲慢, superbia)이다. "오만은 죄의 시작이다."(아우구스, 423 쪽) 오만은 사람이 '더욱 위대한 자가 되려고 애쓰는 일' 또는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주는 "당신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가르친다. 사람이 최고의 선을 실천하려고 의지하는 대신 오만에 빠져 상대적이고 열등한 선을 욕망할 때 그는 악을 범하게 된다. 오만은 주를 버리는 데서 시작되고, 그 결과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의 탓으로 돌리면서 신에게 투덜댄다. 이러한 투덜거림 속에 사람의 비참한 현실이 잘 묘사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면 우리 가련한 인생들이 저질렀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야말로 무지의 맹목 속에, 곤란의 번뇌 속에 태어나며, 우리로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로 먼저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정의의 계명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줄 즈음에는 그 계명을 완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육욕의 필연에 묶여서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은가?(아우구스, 379 쪽)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악은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능력들 사이의 조화가 깨져 무질서 상태에 놓이는 것과 같다. 이 능력들은 서로 열등과 월등의 관계로 질서롭게 맺어져 있을 때 선하다. 사람이 이러한 '자연의 질서' 또는 '창조의 질서'를 알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면, 그는 '선한 의지'에 복종하는 셈이고, 따라서 그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이 된다. 거꾸로 만일 그가 그러한 질서를 모르거나, 설령 그가 그러한 질서를 깨닫고 있을지라도 실천

의지가 약해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면, 그는 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마련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게 된다.
플라톤은 배의 비유[2]를 통해 한 나라의 질서가 깨지는 과정을 잘 그려냈다. 그 계층들 사이의 신분과 역할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저마다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의 한계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한, 나라는 잘 통치될 수 있지만, 통치나 지배의 권한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으로 통치권을 찬탈하는 순간 나라는 파멸하고 만다. 이때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모든 악행을 마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한 통치자마저 집단적으로 제거해 버리려 한다. 악은 선을 모르거나, 그것을 알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비난받을 만한 욕망(정욕, 탐욕, 오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흠'에 대한 주제적 논구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는 악의 문제를 '신을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는 '인격적 관계 맺음'의 문제로 환원한다. 이때 악은 창조의 기반 위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창조 자체가 선하다면, 악은 창조로부터 비롯될 수 없고, 선한 피조물들을 옳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에 의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릇된 사용은 그 사용자가 올바른 사용법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다. 결국 악의 문제는 사람의 욕망과 의지가 왜 선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해명함으로써 해소된다.

2 플라톤 지음, 박종현 옮김, 『폴리테이아』, 서광사, 488a-489a.

2. 칸트의 철학

칸트는 악의 문제를 이성과 경향성 사이의 갈등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설정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갖고 싶어 하고, 두렵거나 괴로운 것은 피하고 싶어 하며, 졸리면 자고 싶어 하고,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는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다. 도덕의 문제는 이러한 경향성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어떤 일'과 충돌을 일으킬 때 발생한다. 우리는 탐이 나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이 저절로 생기곤 한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까닭은 죄에 따른 처벌의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죄를 짓는 게 옳지 못하다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적 강제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종교적 율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칸트가 살았던 18세기 유럽은 종교의 영향력이 크게 분열되거나 쇠퇴한 반면, 정치와 경제 그리고 과학과 문화의 힘이 급격히 커진 세기였다. 무엇보다 당시의 진리관과 세계관은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크게 바뀌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생각들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악에 대한 칸트의 개념은 삶 전체가 상대주의의 격랑에 휩쓸리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서 '보편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그의 '악 개념'이 그 자신의 철학 바탕 위에서 그대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먼저 그가 살았던 당시를 짤막하게 돌아보고 그의 철학의 '밑바탕 틀'을 살펴본 뒤 그가 내세운 '악에 대한 생각들'을 '모두잡아(개념파악)'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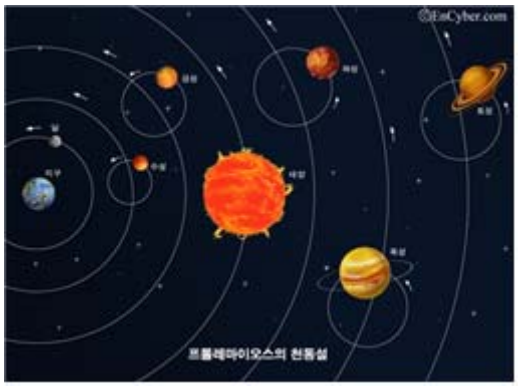
가) 칸트가 살았던 시대

칸트(Kant, Immanuel: 1724~1804)는 마구(馬具) 장인인 아버지 요한 게오르그 칸트와 독실한 경건주의 기독교인 어머니 안나 레기나 도로테아 로이터 사이의 열 한 자녀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다. 칸트의 할아버지는 스코틀랜드에서 동(東)프러시아로 이주한 사람이었다. 칸트는 1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1737), 17살 때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해 6년간 공부했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고향 쾨니히스베르크를 떠난 적이 없었다.
칸트는 32살 때인 1756년부터 46살인 1770년까지 사(私)강사로 지내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왕립 도서관 사서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1764년 프로이센 교육 당국이 제의한 문학부 교수직까지 거절해 가며 철학을 위해 헌신했다. 1770년 46살 때 칸트는 쾨니히스베르크 대학 논리학, 형이상학 강좌 담당 정식 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1781년 57살 때 『순수한 이성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뒤 『형이상학 서설』(1783),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1784), 『도덕형이상학 원론』(1785),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1786), 『실천이성비판』(1788), 『판단력 비판』(1790)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칸트의 살던 때는 무엇보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에 뒤이은 30년 종교전쟁(1618-1648)으로 말미암은 삶의 목적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었고, 과학혁명에 근거한 세계관의 뒤바뀜이 쉴 새 없이 일어났으며, 대규모 항해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경건주의가 약화되고 종교와 관습의 다양성이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서양 중세와 근대를 지배했던 그리스도교는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크게 갈라졌다. 이 두 종교 세력은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 엄청난 파괴와 비참한 결과를 낳은 종교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리스도교 세계는 분열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가 속한 세계에 따라 누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옳은지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교가 삶에 대한 통일된 가르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뜻했고, 사람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 문제를 새롭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 물음에 대해 보다 믿을 만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곳은 종교가 아닌 '사람의 이성'이었다.

과학혁명은 새로운 천체관을 통해 등장했다. 프톨레마이오스(Klaudios Ptolemaios: 85-165)의 지구중심설(천동설)은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가 쓴『천체의 회전에 관하여』(1543년)에 의해 완전히 태양중심설(지동설)로 뒤바뀌게 되었다. 이제 우주의 중심은 더 이상 지구가 될 수 없었다. 우주는 무한하고, 지구는 그 무한 속으로 소실되어 버릴 정도로 작아지고 말았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우주의 중심점이 될 수 없고, 거꾸로 사람은 우주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했다.



중세 말에 화약, 나침판, 콤파스 등이 중국과 사라센(이슬람) 지역으로부터 유럽으로 전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17-18세기에 들어 대규모 항가 이루어졌다. 그로써 유럽 사회는 다른 지역의 물품들과 문화들이 전파되었다. 칸트가 살던 쾨니히스베르그는 프로이센 최대의 항구도시로서 다양한 인종과 관습이 알려졌다. 도덕의 문제에서 이러한 지리학적 영향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칸트는 영국 상인 그린(Green)을 통해 외부 세계를 접촉할 수 있었고, 여행기를 통해 이방 문화를 접하고, 러시와와의 7년 전쟁(1756-1763)이 발발하고, 4년의 러시아 점령기를 거치는 동안 쾨니히스베르그는 러시아 동방 정교의 풍속이 몰려들게 된다.[3]

칸트는 자신의 강의록「자연 지리학(Physische Geographie)」(1756년부터 강의함)에서 상이한 지역에 따른 인간들의 상이한 관습과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는 부친살해는 가장 두려워할 범죄로서, 그 범죄자 자신을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고문하여 죽일 뿐 아니라 그의 전 가족을 죽이고 또한 그 범죄자와 같은 거리에 사는 모든 이웃들을 감옥에 가둔다. 왜냐하면 그러한 패륜은 일시에 일어나기는 불가능하고 점차적으로 성립될 수 있기에, 이웃들은 이미 이러한 패륜을 예견하고 이것

3 이엽, 「악에 대한 윤리학적 이해」, 『악이란 무엇인가』, 92 쪽 살핌. 앞으로 이 논문의 따옴은 본문 괄호 속에 "이협, 00 쪽"의 꼴로 직접 표기함.

을 관헌에 신고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과는 정반대로 에스키모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한 아들이 사냥 중에 부상당한 그의 아버지를 순록의 힘줄을 가지고 죽이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사랑의 의무로서 여겨진다. 때문에 이 힘줄은 항상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겨지고 있다.(이협, 93 쪽)

[아라칸(Arakan)에서는] 여자가 처녀로서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만약에 한 여자가 이미 한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증인이 있는 경우, 이것은 결혼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추천보증이 된다.(이협, 93 쪽)

나) 칸트의 철학

칸트는 종교 세계와 과학의 세계 그리고 문화의 세계가 상대적으로 분열되는 시대를 살았다. 그는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체계적인 세계관을 마련하기 위한 '초월론적 철학'을 구상하게 된다. 이러한 철학 설계는 흄의 경험론을 하나의 사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필연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했다.

- 철학: 질료적(material) 철학 + 형상적(formal) 철학
  > 질료적 철학: 대상에 관해 다루는 철학
  ⇒ 자연학(Physik) 또는 자연에 대한 철학(Philosophie der Natur):
  ↳ 자연의 법칙(Gesetze der Natur)을 다룬다
  ⇒ 윤리학(Ethik) 또는 도덕에 대한 철학(Philosophie der Sitten)
  ↳ 자유의 법칙(Gesetze der Freiheit)을 다룬다
  > 형상적 철학: 지성과 이성 자체의 형식, 달리 말해, 생각 일반의 보편적 규칙을 다루는 철학
  ⇒ 논리학(Logik)

- 칸트는 윤리학의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바꾸었다.
>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규범(規範, Norm) 또는 법칙(法則, Gesetz)을 발견 또는 정립하는 문제
> 18세기 도덕적 상대주의의 극복 방안 모색
> 정언 명법(Kategorischer Imperativ)에 따라 살아라!
↳ 범주적 명령법(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은 경험과 독립된 것이자 보편타당한 법칙성을 갖는 것이다.
↳ 범주적 명령법은 인간 경험이나 신의 계시(종교) 또는 형이상학적 목적론(아리스토텔레스)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성(理性, Vernunft)으로만 말미암는다.

↳ 이성은 외부로부터의 강제의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自律, Autonomie)에 의한 '의무와 책임'을 그 자신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 칸트의 악 개념

악(das Böse)은 "이성의 원리(原理, Prinzip)에 따른 혐오능력의 필연적 대상(ein notwendiger Gegenstand der Verabscheuungsvermögen)"(『실천적 이성에 대한 비판』, A 101)을 말한다.
> 싫은 것, 불쾌한 것은 주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정반대 평가조차 가능한 '우연적인 것'이다.
> 보편타당한 감정: 이성에서 유래한(Quelle) 원칙(Grundssatz)에 의해 혐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협, 97 쪽)
> 행위의 필연성은 오직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낳아질 수 있다.
> 필연성은 어떤 강제나 강요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도덕적 필연성은 자연 필연성과 달리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 도덕적 행위는 내가 '이성의 법칙'으로부터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지를 사용했을 때의 행위를 말한다.(이협, 99 쪽)
> 인간의 의지는 자유를 토대로 삼는다. 사람은 이성의 법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와 달리, 이성의 법칙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어긋나미는 '준칙에 어긋난 자신의 행동'을 혐오하지만, 거스르미는 그 거스름을 자신의 행동 준칙으로 삼은 것이다.
↳ 악은 우리에 의해 의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그 일차적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악은 전적으로 주관의 의도(意圖, Vorsatz)에서 찾아질 수 있다.

- 그런데 만일 이성이 병들었다면? 사람은 '악을 행하려는 자연적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경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배우거나 익힌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성향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렸고, 그 결과 또한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다. 하지만 사람의 모든 경향성이나 성향이 악한 것은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를 때,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할 수 있지만, 그것의 쓰임에 따라 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성 자체 또한 언제나 선한 것일 수는 없고, 사람이 그 자신의 이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성은 물욕이나 권력욕의 시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자연의 더위나 추위에 노출되어 있듯이 언제든 모든 악의 침공을 받을 수 있다. 악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 악이 없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악이 결국 세계의 문제이자,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철학이 삶의 의미에 관한 물음을 물어야 한다면, 악은 삶의 의미마저 파괴하는 것으로서 철학의 적대자일 수밖에 없지만, 악이 그러한 적대자이기 때문에 철학은 악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볼 수 있다.